인천주보

제2640호
2020년 10월 25일 | 연중 제30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연희동 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입당송 |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 탈출 22,20-26

화답송 | 시편 18(17),2-3ㄱ.3ㄴㄷ-4.47과 51(◎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 1테살 1,5ㄴ-10

복음 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마태 22,34-40

영성체송 |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교구장 사목교서 이 주의 성경쓰기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8)

요 일	25 (주일)	26 (월)	27 (화)	28 (수)	29 (목)	30 (금)	31 (토)
성경 / 장	히브 10,1-10,18	10,19-10,39	11,1-11,15	11,16-11,40	12,1-12,13	12,14-12,29	13,1-13,25
확 인							

어른의 지혜

오래전 미사를 마치고 성당에서 신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은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미국으로 향했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온 동양사람. 게다가 자신이 조국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가 몸에 익어 있었기에, 일자리를 구함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 한인 성당의 회장님께서 오셔서, 이 곳의 현실을 알려주고 자신이 취직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셨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자신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미국에서의 삶도 적응이 되었을 때, 새로이 이민 오는 동포들에게 마음을 써 줘야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 때, 한인 성당의 회장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걸세~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적응하기 힘든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지." 그 형제님은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기만 했던 시간들, 하지만 삶의 풍요가 주님의 계명을 잊고, 잃게 만들었음이 무척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헌하고 봉사하면서, '하느님 도와주세요.'하고 기도했었지만, 삶의 풍요가 찾아오자 신앙도, 사랑도, 배려도 놓치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 때에는 서로 나누고 돌보는 것들이 당연했지만, 재화가 쌓이고 각자의 삶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워지니, 나누고 돌보는 것들이 더 어려워지고, '내가 언제 하느님께 청원을 드렸던가?'라고 할 정도로 신앙의 견고함이 물러졌네요. 신부님은 아직 젊어서 나이가 들어감이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젊어서는 열정과 자신감과 도전이 있지요. 다만 돈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며, 지혜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주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두며, 말씀대로 살 수 있기만을 바라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백발의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생으로 살아가면서 희망했던 사제의 모습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사제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풍요는 때때로 주님의 계명을 잊고 잃게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는 배려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깊은 신앙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시대의 어려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힘을 주시는 은총입니다. 2020년은 온 세상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39)

민경덕 베드로 신부
심곡 본당 주임

이주의 암송구절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야고보서 – 실천으로 나아가는 믿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오로 서간」이라 일컬어지는 문헌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바오로 사도와 관련이 없는 서간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바오로 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 베드로 1·2서, 요한 1·2·3서, 그리고 유다서가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순서는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갈라 2,9)이라는 갈라티아서의 언급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전통은 예부터 이 일곱 편지를 묶어서 「가톨릭 서간」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본래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서간들이 바오로의 로마서나 코린토서처럼 어느 특정 지역의 신자들을 위해 쓰였다기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신자들, 즉 보편 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서간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간의 발신인과 수신인은 첫 인사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디아스포라: διασπορά) 열두 지파에게 인사합니다"(야고 1,1). 여기서 언급되는 발신인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세 명의 야고보를 소개합니다: 1) 예수님의 제자로 제배대오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인 야고보(마르 1,19-20); 2) 예수님의 다른 제자인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마르 3,18); 3) '주님의 형제'로 불리는 야고보(갈라 1,19). 교회 전통은 이 중에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서간의 저자로 지목해 왔습니다. 그는 비록 열두 사도단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고(1코린 15,7)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 초대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사도 12,17; 15,13-21; 21,18; 갈라 2,9.12). 그런데 우리가 바오로의 서간들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저자가 자신을 야고보로 소개한다고 해서 이 서간이 반드시 야고보의 작품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의 제자 또는 그를 존경하는 어떤 이가 차명으로 서간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집필 시기는 기원후 1세기 말경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그 내용과 권위에서 역사적으로 논란이 꽤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늦게(3-4세기) 경전으로 채택된 편이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개신교 전통은 복음적인 특성과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는 점, 특히 바오로의 의화(義化) 사상과 반대되는 듯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서간을 평가절하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과거의 평가들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야고보서가 전하는 가르침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믿음'과 '실천'의 관계일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2,14-18). 어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이 바오로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된다고 해석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갈라 2,16)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오로 역시 믿음은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고 가르치면서 신앙인들에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을 가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권고합니다(참조: 로마 6,12-23; 갈라 5,19-25; 1코린 13장). 다시 말하면 두 가르침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야고보서 저자는 당시 바오로의 의화 사상을 잘못 이해한 자들이 말로만 믿음을 강조하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에는 소홀했던 모습을 강하게 경고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말 그대로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에 따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증거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믿음을 주술로 착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느님 말씀의 실천으로, 특히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행동으로 그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야고 1,22).

정천 사도 요한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마리아 – 신앙의 가장 뛰어난 모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우리라면 조연은 누구일까? 지금까지 번듯한 직장도, 평온한 가정도 이룰 수 있었던 주인공이 등장하는 인생 드라마는 한 여인의 산고(産苦)와 함께 시작되었다. 배고파 우는 그를 먹였고, 커가는 그를 입혔다. 첫 뒤집기를 하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걷다가 넘어질세라 조마조마했다. 학교에 가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고, 차가운 세상에 내던져진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을 저며왔다. 그렇게 사랑했다. 그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연은 그를 온전히 사랑했다. 그것이 조연의 몫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드라마에서도 조연은 '어머니'의 역할로 등장한다. 그 어머니의 모습은 모든 어머니의 모범이며, 모든 조연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명품 조연이었다. 그리고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조연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드라마에 한 등장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조연을 우리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모든 교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모님 자신을 말하기 위한 교회의 모든 고백에서도 그분은 조연으로 남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되어 계셨다. 하느님을 모시는 태는 얼마나 거룩해야 했을까. '죄'와는 멀리 계셔야 하는 분이셨기에,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오직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태를 준비하기 위해서(원죄 없으신 잉태).

하느님을 모시는 태는 거룩했다. 성령께서 그리하셨다.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다른 태아들과는 달랐다. 그리고 탄생 후에도 그분을 모셨던 태는 거룩하게 남아있었다. 하느님을 모시는 거룩함을 위해서(평생 동정).

그렇게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분을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심을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하느님의 어머니).

마지막까지 그분은 예수님을 위한 조연이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로 올려지셨다. 당신의 영광 같아 보이는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다(성모 승천).

그런데 조연의 존재에 빠져 들어 주연과 조연을 헷갈려 하는 이들이 있다. 조연이 등장하는 장면만을 보고 그가 주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조연이 훌륭했기에 조연을 떼어내어 다른 드라마의 주연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 일이 TV 드라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드라마에서는 불가능하다. 오직 한 분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본 구원의 드라마에서 명품 조연은 결코 주연을 바라지도, 그럴 능력도 없는, 즉 하느님이 될 수도 없고 하느님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 그저 겸손한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가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 그런 그녀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판단은 묵살한다. 심지어 그녀를 향한 호칭을 교묘히 바꾸어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 하느님'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고선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 둘이 있다고 하며 모성애를 자극한다.

하느님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는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구원으로 초대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등장인물을 드라마 결말까지 이끌고 가신다. 물론 구원 드라마의 결말은 구원의 완성일 것이다. 하느님의 구원 드라마 결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는 명품 조연인 마리아가 온 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왔던 삶을 본받고자 한다. 그분은 우리 신앙의 가장 뛰어난 모범이기 때문이다.

명형진 시몬 신부 · 선교사목부 부국장

교구 행사

교구 쇄신위원회 회의

교구 쇄신위원회(=위원장 이용권 베드로 신부)가 6일(화) 교구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본 위원회는 교구의 부족한 점을 되짚고 변화를 모색하고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대표 13인으로 구성되었다.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된 첫 회의에서 각 위원들은 쇄신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진행 방향들에 대해 토의하였다. 교구는 지난 6월 교구쇄신위원과 성직자쇄신위원을 구성하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각계의 쇄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본 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된다.

교구 행사

이주사목부 독감 백신 접종

18일(주일) 사회사목국 이주사목부(=부국장 김미카엘 미카엘 신부)는 사단법인 유어프렌즈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하고 인천기독병원의 의료기관의 협력으로 교구 이주사목부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이용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 독감백신 접종을 진행하였다. 필리핀 공동체(60명), 베트남 공동체(90명), 방글라데시(34명), 중남미 공동체(6명), 품놀이터(10명) 총 200명이 사전 문진표 작성 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였다. 김미카엘 신부는 "코로나로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백신 접종을 지원해주신 사단법인 유어프렌즈와 한국수출입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였다. 이번 무료 백신을 통해 코로나19로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교구 행사

제11차 선교사의 날

17일(토) 보니파시오 강당에서 복음화사목국 선교사목부(=부국장 명형진 시몬 신부)는 본당 선교분과장, 선교사학교 수강생과 수료생, 선교대상에 초대받은 냉담자와 예비신자들을 대상으로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차 선교사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미사 전 음악 선교 피정을 통해 노래와 율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강론에서 정신철 주교는 "전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구에서 해외로 파견된 신부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기를 청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우리 주변의 냉담자를 기도로 선교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사 중 신자들에게 봉헌을 받은 선교 대상 초대하기 카드를 봉헌하며 전교주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교구 홍보기자 장창규 루도비코

교구 안내

'위령의 날' 선종사제 및 모든 연령들을 위한 미사

1. 백석 하늘의 문 묘원(집전: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 일 시: 11월 2일(월) 11시
   · 장 소: 인천시 서구 드림로 472
2. 마전동 묘원(집전: 총대리 이용권 베드로 신부)
   · 일 시: 11월 2일(월) 11시
   · 장 소: 인천시 서구 마전동 산 164
3. 포동 묘원(집전: 황성재 미카엘 포동 성당 주임신부)
   · 일 시: 11월 2일(월) 10시
   · 장 소: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12번길 20-16 포동 성당
4. 매괴의 모후 묘원(집전: 강영식 바오로 김포 성당 주임신부)
   · 일 시: 11월 3일(화) 14시
   · 장 소: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19번길 64

후원 안내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성지 조성 후원 안내

내용	인원	금액	혜택
추모의 벽	1인당	1,000,000	한 달에 한 번 10년간 미사 봉헌
기도의 벽			
1구좌	1인당	500,000	

☎ 성지개발 위원회 032-765-6916

축복과 감사의 박문초 120년

인천교구 교육 사도직의 한 곳인 인천 박문초등학교가 올해 개교 120주년을 지냈습니다. 1900년 9월 1일에 개교한 본교의 이름은 1898년에 창설된 독립협회 인천지회인 '인천박문협회'에서 '박문'을 따왔는데 원래는 공자의 『논어』 '안현'편의 '박학어문 약지이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독립운동을 하신 '강준','김교원' 두 분이 교육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기르고자 박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909년 파리외방선교회 '드뇌(한국명:전학준)' 신부님이 제1대 교장 선생님으로 초빙되셨고 같은 해, 제물포 성당(현, 답동 성당)에서 학교 운영권을 인수하였습니다. 전학준 교장 신부님은 26년 동안 갖은 노력으로 50명으로 시작한 학교를 853명의 규모로 발전시켰습니다. 해방 전까지 일본의 집요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육은 지속되었으며 학교의 재정적 위기 때는 인천시민의 모금으로 학교가 회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962년 답동 성당 내에 단층 교사를 신축하고 이후 꾸준한 증축으로 학교의 규모가 성장하였습니다. 1964년에는 '학교법인 인천가톨릭 교육재단'으로 설립자를 변경하고 나 굴리엘모 주교님께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1978년 나 주교님께서는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에 학교 운영을 맡기셨고, 다양한 선진교육으로 학교의 명성을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1996년 교육법개정으로 '인천 박문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이후 답동 성당 내에 있던 학교를 연수구 동춘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1년 9월 1일 최기산 재단 이사장 주교님을 모시고 신축 교사 축성식을 하고 활기차게 출발하였습니다. 2005년 9월 1일에는 인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교 105주년 기념 뮤지컬 공연을 하였습니다. 2006년 2월부터 이사장 주교님께서는 '노틀담 수녀회'에 학교 운영을 위탁하셨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본교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면서 박문의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성 교육, 미사 전례와 성지순례, 첫영성체 교리 등 종교교육을 활성화하여 가톨릭의 전인적 인성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서 기반을 갖추도록 학력뿐 아니라 체험 위주의 다양한 활동들 즉, 현장 체험교육, 영어, 중국어 교육, 인문예술을 통합하는 미술교육, 오케스트라, 다양한 체육활동과 세계시민 교육, 생태환경교육, SW 교육, 마을 연계 교육, 사이버 외교관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120년 역사의 전통과 박문의 저력은 올해 코로나19를 만나면서 그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학교 교육에 모두 당황할 때 박문초에서는 가장 먼저 양방향 화상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이버이지만 학교생활과 같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교과수업과 특별활동을 합니다.

가톨릭 교육사명으로 일치하는 박문의 모든 교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은 변화의 순간과 방향을 알아채고 성령의 이끄심에 용기 있게 응답하였습니다. 지난 120년과 앞으로의 시간에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 루피나 수녀 · 인천 박문초등학교 교장

교육 | 피정

◈ 온라인 성서사십주간
40주간 신구약 성경 강의 [주-1회]
시작: 11/12(목) 10:00~12:00, 13(금) 19:30~21:30
☎ 032-765-6967, 010-9440-0627

◈ '말씀으로 회복하는 7주간 기도회'
"한 말씀만 하소서. 곧 나으리이다."(루카 7,7)
때·곳: 매주(수) 19:30~22:00 부평4동 성당
강사: 10/28 양창우 요셉 신부 외 말씀 강사
참가: 전화 신청(50명 이내 가능)
☎ 사무실 032-527-2311, 회장 010-3707-0238
(생)유튜브에서 '부평4동 성당 영상 기도회' 입력

◈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4박 5일: 11/13(금)~17(화)
예수마음기도 8박 9일: 11/13(금)~21(토)
이냐시오 2박 3일: 11/13(금)~15(주일)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11/13(금)~15(주일)(기본)
노화의 심리와 영성: 11/13(금)~15(주일)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 010-9099-2337 / www.jesumaum.org

◈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031-360-7635, 010-7470-7966

미사 | 행사

◈ 故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1주기 추모 미사
때·곳: 11/12(목) 14:00 백석 하늘의 문 성직자 묘원
☎ 미래사목연구소 031-986-7141

◈ 교구 체나콜로(다락방) 미사
때·곳: 10/26(월) 부평4동 성당 12:30 찬미,
체나콜로 기도 후 미사
준비물: 미사도구, 합본집, 묵주, 메세지

◈ 마재성지 '수험생과 그 가정을 위한 미사'
기간: 수학능력 시험일(12/3)까지 원하는 날짜,
기간만큼 봉헌 가능 ☎ 031-576-5412

◈ 故 차동엽 신부 선종 1주기 기념 학술 심포지엄
때: 11/7(토) 9:00
곳: 인천가톨릭대 송도국제캠퍼스 카펠라관
☎ 인천가톨릭대 복음화연구소 032-930-8014
코로나 -19로 인해 입장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모집 | 일반

◈ 심곡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 유급
☎ 032-666-2061

◈ 재속 전교 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 가르멜 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
면담: 11/24 ☎ 010-8244-6738

◈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00~17:00 / 야간진료 (화) 18:00~20:30
곳: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 031-810-9200 / www.karf.co.kr

◈ 수어교육(중급반)
때: 10/27~ (화·목) 19:00 [주-2회, 총 18회]
곳: 사회사목센터 4층 또는 B1
수강료: 8만원 ☎ 010-2908-0299

◈ 여성의 전화상담
가족, 대인, 심리 (월~금) 10:00~16:00
☎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02-990-9366

◈ 부부 심리치료
기간: 10/29~11/13 / 참가비: 무료
부부 상담(드라마 치료) [주-1회, 2시간]
대상: 재혼 부부 또는 재혼 예정 커플
☎ 032-763-9337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 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을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 모집
☎ 02-764-4741~3 / www.holyfcac.or.kr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호스피스
대상: 말기암 환자 등 호스피스 대상자
담당: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 032-280-6201~3

◈ 21년도 노틀담 유치원 입학설명회
때·곳: 10/27(화) 16:00, 31(토) 10:30 노틀담 유치원
전화 예약, 상담가능 ☎ 032-542-1060

◈ 21학년도 소명여고 온라인 입학설명회
때·곳: 10/28(수) 18:30 유튜브 채널-소명여고
대상: 부천 시내 중3 학생 및 학부모
학교 안내, 2024 대입안내, 상담
☎ 070-7099-5416, 5514
신청: 소명여고 홈페이지(www.somyong.hs.kr)

◈ 21학년도 가톨릭상지대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2차 모집: 11/23(월)~12/7(월)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21학년도 인천가톨릭대 일반대학원 모집
접수기간: 11/10(화)~20(금) 17:00
모집학과: 조형예술학과, 간호학과,
그리스도교 미술학과, 디자인콘텐츠학과
☎ 송도국제캠퍼스 032-830-7022

순례 | 기타

◈ 제주도 성지순례
때: 11/29~12/1 [3일] 고품격 순례, 아시아나 항공,
호텔 2인-1실, 지도사제 동행 및 미사 봉헌
☎ 김명윤 베네딕도 032-773-5995,
010-5909-5997

성소모임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때·곳: 11/1(주일) 9:30 서울 돈암동본부
☎ 010-9937-0901

교구 안내

낙태 반대와 생명수호를 위한 9일기도와 미사

〈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 철회를 청하며 〉

· 9일기도

때·곳: 10월 23일(금)~31일(토)
성모순례지 11시 미사 전 묵주기도 5단 봉헌

· 생명수호 미사

때·곳: 10월 31일(토) 11시 성모순례지
집 전: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